

(2) 베틀의 명칭과 구조

베틀은 명주·무명·삼베 같은 피륙을 짜는 틀이다. 목재로 만들었으며, 두 개의 누운 다리에 구멍을 뚫어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우고 가랫장으로 고정시켰다. 여기에 도투마리를 얹고 잉아를 걸어 말코에 걸며 앉을때에 앉아 부티를 허리에 두른다. 베틀은 여러 가지 도구와 부속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원체(몸통)·전력장치·직포장치로 구분된다. 원체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틀다리의 전후방에 앞기둥과 뒷기둥이 박혀 있고, 그 중앙부에는 한 쌍의 베틀다리가 가로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전력장치는 오른쪽 다리를 앞뒤로 밀었다당겼다 하는 동력이 베틀신으로부터 신끈·신대·용두머리·눈썹대·눈썹노리·눈썹끈·잉앗대·속대를 지나 잉앗살까지 전달되어 잉앗살에 걸려 있는 날실을 아래 위로 오르내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세부적인 장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용두머리(원삼): 베틀의 앞기둥 위에 걸쳐놓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나무로 여기에 눈썹대·베틀신대를 끼운다.

눈썹대(나부손): 용두머리의 양쪽 끝에서 베를 짜는 사람 쪽으로 뻗어 있는 가느다란 막대기 두 개를 말하며, 눈썹줄로 잉앗대에 연결된다.

눈썹노리: 눈썹대의 끝부분을 말하며, 이곳에 눈썹줄이 연결된다.

눈썹줄: 각 눈썹대에 연결된 끈으로 잉앗대가 여기에 연결된다.

잉앗살(잉애살): 잉앗대에 연결된 많은 실고리로 날실 하나하나를 걸쳐 잉앗대에 연결한다. 용두머리의 동작에 따라 날실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잉앗대: 눈썹줄과 잉아를 거는 나무이다.

속대: 잉앗대 아래에 연결된 나무이다.

북(배): 실꾸리를 넣고 날실 사이로 오가면서 씨실을 넣어 직물이 짜이도록 하는 배 모양을 한 나무통이다.

북바늘(북딱지): 북에 꾸리를 넣은 다음 꾸리가 위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꾸리: 북 안에 넣어서 씨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감아둔 실이다.

바디: 대오리를 참빗처럼 세워서 두 끝의 앞뒤로 대오리를 대고 단단하게 실로 엮어 만든 것이다.

바디집(보두집): 바디의 위와 아래에 두른 두 짝의 나무테로 홈이 있어 바디를 끼우고 양편 마구리에 바디집 비너를 꽂는다.

바디집 비너: 바디집 머리를 잡아 꿰는 가는 나무와 쇠이다.

최활(켓발): 포목을 짤 때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로 넓이를 유지시키는 나무이다.

부티(화랑개): 포목을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부티끈으로 매어, 짜는 사람의 허리에 두르는 띠이다.

부티끈(분테끈): 베틀의 말코 양끝과 부티를 연결하는 끈이다.

말코(몰코): 포목이 짜여 나오면 감기 위한 대로 이 끝에 부티끈을 잡아 매어 몸의 힘으로 날실과 짜인 포목을 잡아당긴다.

앉을개(앉을대): 베 짜는 사람이 앉는 널판으로 뒷기둥 위 베틀다리 위에 걸쳐놓는다.

뒷다리(뒷기둥): 베틀다리의 뒤를 버티는 짧은 기둥이다.

다올대(밀침대): 날실을 풀기 위하여 앉을개에 앉은 채로 도투마리를 밀어서 넘기는 긴 막대기이다.

눌림대 : 잉아 뒤에 있으며 베의 날을 눌러 고정하는 작용을 한다.

눌림끈 : 베틀에서 눌림대를 베틀다리에 잡아 매는 끈이다.

비경이(빙어리) : 잉아 뒤와 사침대 앞 사이에 있어 날실이 잘 벌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베틀다리 : 베틀 원체를 이루는 것으로, 베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앞기둥과 뒷기둥에 가로로 걸친 한 쌍의 길고 굵은 나무이다.

앞다리(앞기둥) : 베틀 원체를 이루는 것으로 다리 앞쪽에 구멍을 뚫어 박아 세운 한 쌍의 기둥으로 용두머리가 이 위에 걸치게 된다.

베틀신 : 용두머리를 돌려 잉아를 잡아 올리기 위하여 신대 끝에 신끈을 달고 그 끝에 동인 외짝 신으로, 보통 직녀가 오른발에 신는다.

베틀신대 : 용두머리 중앙 뒤쪽에 박아서 아래로 내려뜨려 베틀신과 베틀신끈으로 연결시키는 대나무이다.

사침대(사침) : 두 개의 대나무 꼬챙이로 만들며 베틀의 비경이 옆에 있어 날실의 사이를 떼어주는 작용을 한다.

도투마리(도트마리) : H 형의 널빤지로 되어 있으며 베매기에서 날실이 여기에 감긴다.

뱀댕이(뱀대) : 베매기에 의해 날실을 도투마리에 감을 때 서로 붙지 못하게 사이사이에 끼우는 뗏가지이다.